



부상병동 된 흥명보호

흥민아!... 어쩌면 좋니

축구대표팀 흥명보호(오른쪽) 감독과 손흥민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대화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일주일 사이 중원 핵심 3인 이탈
황인범 부상 후 대체 자원 백승호·
이동경까지 줄줄이 소집서 제외
“허리 중요하네 예선된 선수 없어”
대표팀, 울며 겨자 먹기 플랜 B 가동

A매치를 앞두고 잇따른 부상 악재에 직면한 축구 국가대표팀 흥명보호 감독의 고민이 깊어졌다. 흥 감독은 이달 볼리비아, 가나와의 2연전에 출전할 27명의 선수를 발탁했지만 그중 3명이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전력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생겼다.

‘중원 사령관’ 황인범이 6일 가장 먼저 부상 소식을 전했다.

황인범은 소속팀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에서 왼쪽 허벅지를 다쳐 6~8주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대표팀에 오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표팀은 “애초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수들 선



(위부터) 부상으로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된 황인범·백승호·이동경.

발했다. 테스트할 미드필더가 많다”며 대체할 자원을 따로 뽑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황인범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점쳐졌던 백승호(버밍엄시티)마저 다치자 상황이 달라졌다.

백승호는 9일 미들즈브러와의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경기에 출전했다가 킥오프 1분 만에 공중볼 경합 직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어깨를 다쳤다.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 자원 두 명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남은 자원은 원두재(코르파간), 엔스 카스트로프(핀헨글라트바흐), 김진규(전북 현대), 권혁규(FC 낭트) 단 4명으로 줄어 추가 발탁이 불가피해졌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이동경(울산)마저 다쳤다. 이동경은 9일 수원FC와의 K리그 1 36라운드 중 오른쪽 갈비뼈 골절을 당했고 회복에 4주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이번 A매치에서 빠지게 됐다.

소집 선수 명단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선수 세 명이 잃은 흥 감독은 결국 배준호(스트로크시티)와 서민우(강원)를 대체 선수로 발탁했다.

둘 다 A매치 경험은 많지 않다. 2003년생 배준호는 A매치 10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고, 서민우는 올해 7월 동아시아축

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3경기에 출전하며 A매치에 데뷔했다.

이번 2연전을 포함해 대표팀은 내년 월드컵 전까지 3번의 A매치 기간을 갖는다.

이번 달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흥 감독이 ‘플랜B’를 점검하고 다듬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대회를 코앞에 둔 내년 6월 1~9일에 예정된 A매치 때는 사실상 훈련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23~31일 A매치 기간에는 최정에 선수들을 가동해 본격적인 실전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친선 경기를 치른다.

흥 감독은 10일 대표팀 소집훈련 시작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악재로 새로운 중원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 “축구에서 허리는 중요한 곳인데, 월드컵 최종 예선에 뛰었던 선수들이 거의 없어서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새 조합을) 만들고 역할에 대해 좀 더 집중력 있게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돈 받고 살살 던졌다” MLB 승부조작 혐의

클라세·오티스 불법 도박 연루
사무국 투구별 베팅 한도 두기로

현역 선수들의 스포츠 도박 공모 행위로 발각된 집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투구별 베팅 한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MLB 사무국은 11일(한국 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투구별 베팅 최고액을 200달러(약 29만 원)로 제한하고, 이를 복합 베팅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미국 스포츠 도박 시장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공인 베팅 업체들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MLB는 최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마무리 투수 엠마누엘 클라세(27)와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26)의 불법 스포츠 도박 공모와 승부 조작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정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두 선수는 도박사들에게 돈을 받고 경기 중 특정 투



로이터=연합뉴스

구의 구속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7월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최근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오티스는 10일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고, 11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두해 50만 달러(7억 원)의 보석금을 내기로 풀려났다.

AP통신은 “클라세와 오티스는 통신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스포츠 경기 결과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고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클라세와 오티스는 클리블랜드의 주축이었다.

출루율 높고 도루도 거뜰... 2번 고정 안현민 나가신다

체코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한국 야구대표팀에서 유일하게 ‘고정 타순’에 등장한 타자는 2번 안현민(kt wiz·사진)이었다.

안현민은 8일 1차전에서 4타수 1안타, 9일 2차전에서는 4타수 1안타 2볼넷 3득점으로 활약했다.

안현민에게 기대하는 시원한 장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경기에서 4번 출루해 3번 홈에 돌아왔으니 테이블 세터로 임무에 성공한 셈이다.

안현민은 15,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일본과 평가전에도 2번 타순을 지킨다. 류지현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9일 체코와 2차 평가전이 끝난 뒤

“일본에 가서도 안현민은 2번 타자”라고 공언했다. 안현민을 2번 타자로 고정한 근거는 ‘강한 2번 타자’와 같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최근 주목받는 ‘조정특점 창출력’이라는 개념의 wRC+(Weighted Runs Created)가 이유다. wRC+는 타자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해당 시즌 리그 투타 성향과 구장까지 변수로 반영해 계산한다. 그래서 OPS(출루율+장타율)보다 더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격 지표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안현민은 출루율이 높고 단독 도루 능력도 겸비해 전통적인 2번 타자 역할을 소화하는 데도 손색없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 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